안녕하세요.

HopeLine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된 Jun 선생님입니다.

저는 현재 뉴욕에 있는 병원의 정신과 응급실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.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만나면서,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편안하게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.

살다 보면 마음이 지치고,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어디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할지 막막할 때도 있지요.

HopeLine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듣고, 여러분이 겪고 계신 어려움을 함께 살펴보며, 필요한 경우 전문 상담이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.

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드릴 수는 없지만, 여러분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고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 드리고 싶습니다.

편안한 마음으로 찾아와 주세요.

따뜻한 마음을 담아,
Jun 선생님 드림
hope@psaltnk.org